

예배 전에

설은 우리 민족의 고유명절입니다. 예배 드리면서 앞서가신 분이 남겨놓은 신앙적 유산과 교훈을 기억하고, 믿음을 더욱 새롭게 하며, 내세의 소망을 굳건히 하시길 바랍니다.

예배가이드영상이 필요하신 가정은 QR코드를 통해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교회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pusanskc.com>



예배순서

예배의 부름	인도자
찬 송	301장
기 도	말은이
성경봉독	로마서 8:31-39
말 씀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기 도	인도자
찬 송	551장
묵상기도	다함께
주기도	다함께

<예배의 부름>

이 설명절에 새로운 한해를 기쁨과 축복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함께 묵상기도 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와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와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와 그의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주시기를 원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 경 로마서 8:31~39

- 31 그러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 32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 33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 34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 35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 36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 37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 38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말 씀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2024년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복된 한 해를 시작할 때, 말씀을 통해 주시는 위로와 격려를 붙잡고 살아 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 해를 주님께 봉헌할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고 흥내낼 수 없는 은혜를 고백하고 간증하는 모든 성광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광의 모든 권속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붙들고 계심을 말씀합니다.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 주시고 궁극적으로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은 로마 황제 네로가 통치하고 있던 시대에 전해졌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마칠 무렵인 겨울에 기록했습니다. 바울은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전초기지로 로마 교회의 도움을 원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로마 교인들의 신앙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었기에 이 말씀을 기록한 것입니다.

첫째로, 31-33절에 신자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분이므로 그보다 덜 귀한 다른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 주신 하나님께서 하물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아까워 내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권속들은 주어진 삶의 환경에서, 안심시키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사에 감사드리며 항상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사는 목적을 바로 해야 합니다. 현재와 관련해서는 하나님은 “의롭다 하신 이”이므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아무도 정죄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모든

기 도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올 해도 어김없이 우리에게 살아갈 호흡과 시간을 주셔서 저희 가족과 친지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기회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사랑하며, 우리가 속한 곳 가운데 나누며 행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강하고 편 팔로 붙드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선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배와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것"이란 예수를 이 땅에 보내 주신 목적에 부합되는 모든 것, 즉 우리의 구원과 결합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사는 이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34절에서 신자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에 기록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부활 후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며 신자들을 위해 중보의 기도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우편'이란 말은 '권능'과 '존경'의 표시로 예수님의 승귀(昇貴)를 뜻합니다.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손님을 초대하여 식사를 대접할 때에는 반드시 주부의 오른쪽에 앉게 합니다. 기독교의 관습에서 온 것입니다.

또 "앉아 계신다"는 말은 통치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고대에는 주인이나 통치자는 앉아서 명령하고 노예는 서서 시종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든 권속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십니다. 그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가 있기를 기도하십니다. 그러니, 올 한해, 모든 권속들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열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 35-39절에서 신자와 악한 환경과의 관계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35절의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은 세상의 악을 말합니다. 38, 39절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은 초자연적인 악을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이들에게는 성도이기에 받는 환난과 시험이 있습니다.

마 5:11-12절에서 11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비록 질그릇 같이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 안에는 보배로운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경제가 어렵고 삶에 곤궁함이나 환란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이 위대한 사랑의 진리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면,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2024년 한 해,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강하게 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인내함으로 승리하는 새 해를 만들어가는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금년 한해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한 해가 됩시다.

설교 후 기도

하나님, 우리 가족에게 2024년 새해를 선물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선물로 주신 날들을 살아갈 때에,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사랑으로, 능력으로 살게 하옵소서.

힘든 일과 어려운 환경을 만날지라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을 의지하여 이기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 때에, 막힌 담이 무너지고, 희미하던 길이 대로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올 한 해 모든 식구들의 건강을 지키시고, 마음을 지키시고, 생각을 지키사, 주님 안에 평화하며 안식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기로 결단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각하기

다함께 잠시 묵상하면서 앞서가신 어르신들께서 남겨주신 교훈이 무엇인가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복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4



설 가정 예배

대한예수교장로회
영도성광교회
49024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학서로 42_0514163043